

남녀칠세부동석의 수사학

국내 신문 기사(1920-2019)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배홍철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수료, 도시사회학 전공

realconte@gmail.com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III. 배제와 분리의 수사학
 - IV. 전술적 활용
 - V. 맺음말
-

I. 머리말

사회과학의 논의에서 성(sexuality)이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기보다 역사적·문화적 전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발명품’으로 비유되어왔다.¹ 동일 선상에서 ‘우리 사회’의 성문제를 다루는 논의 역시 ‘한국적’ 배경에 천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한국적 성 보수주의 담론이다. 성 보수주의는 주로 성윤리로 대변되는 철학적 논의에서 전개되어왔다.² 여기에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는데, 이른바 ‘남녀칠세부동석’으로 같음되는 유교주의 보수성 담론이다. 사회과학은 윤리적 논의의 위험성을 견지하면서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다. 섹슈얼리티 논의를 가부장제의 사회 구조와 결부시키면서 그 기원을 전근대 유교 사회로부터 찾아오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근래 조선의 성문화를 조명한 역사 연구들은 이러한 상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유교국가 “조선의 섹슈얼리티란 억압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근대 이전부터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다는 완고한 의식, 혹은 보수적이었지만 서서히 개방되어왔다는 관점을 고수해왔다.⁴

이 지점에서 푸코의 논의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는 “억압(répression)”

-
- 1 제프리 워스 저, 채규형·서동진 역, 『섹슈얼리티』(현실문화연구, 1994), 18쪽.
 - 2 김은희, 「자유주의 성윤리의 수정: 쾌락 중심에서 자율성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9권(2013); 류지한, 『성윤리』(울력, 2002).
 - 3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韓國漢文學研究』 42호(2008); 정병실, 「조선 후기 성(性)의 실상과 배경: 『기이재상담(紀伊齋常談)』을 중심으로」, 『人文叢論』 64권(2010), 163쪽.
 - 4 김중순,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일조각, 2015);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 『한국여성정치사회사』(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을 실재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진술에 주목하면서 논의의 방향을 전환했다. 서구사회에서 성이 억압되어왔다는 오랜 “믿음”이 존재하지만, 그 믿음이란 역사적 검증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⁵ 그러나 그의 해석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성에 대한 억압이나 보수적 태도 역시 실체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여성주의가 제기해 온 의미 있는 반론들, 즉 성별에 따라 편향적으로 부여된 수많은 규범과 통제의 그물망을 한국사회는 목도해 왔다. 다만 성에 대한 한국적 보수성을 유교적 전통 윤리의 연장선에서 이해해 온 정형화된 관점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경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보수성을 상징해온 이 용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녀가 7세가 되면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의미로, 유교 경전 『예기(禮記)』에 처음 등장했다. 남녀칠세부동석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 다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대 남녀의 질서를 대변하는 규범이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오랜 경구가 대한제국이 막을 내리고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장되기는커녕 별다른 주석 없이 대중매체에 등장할 정도로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섹슈얼리티 담론이 유교라는 문화적 배경과 끈질기게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유교주의 보수성 담론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면서 사회적 장애물의 극복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담론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을 내세운 유교적 의식이 남녀평등과 자유 이성 교제라는 선진적 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주장들이

5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성의 역사』(나남, 2010).

남녀칠세부동석을 반복적으로 소환함으로써 오히려 경구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온 측면이다. 다시 말해 ‘탈’남녀칠세부동석의 구호야말로 남녀칠세부동석의 역사적 퇴장을 지연시켜온 것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는 푸코의 지적처럼, 억압을 전제로 탈-억압과 해방을 내건 주장들이야말로 억압이 실재한다고 믿게 만든 주역이었음을 상기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오랜 경구가 어떠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활용되고 재편되어 왔는지, 그 구조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0여 년간 신문 및 잡지 등의 대중매체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경구가 소환된 배경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지시적 의미를 추적하였다. 다시 말해 남녀칠세부동석의 현대적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효하다는 논의들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유교주의 보수성 담론의 이면을 밝혀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1. 억압의 담론

20세기 서구의 논의에서 성은, 주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자 동시에 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으로 공유되어 왔다. 성이 “억압”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리게 되는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인간이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전제아래 성욕의 본질론에 대한 사회

적 합의를 이끌어냈다.⁶ 동시에 성의 문제를 무의식 속 리비도의 억압으로 설명하면서 성과 억압의 연결고리를 구체화했다. 마르쿠제 역시 인류의 역사가 곧 성 억압의 역사라는 관점을 고수했다.⁷ 문화가 인간의 사회적 실존과 본능을 제약해온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제약이야말로 진보의 필요조건이라는 역사 변증법의 논리를 펼쳤다. 한편 ‘일단’의 페미니즘 연구들은 프로이트의 남성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면서도 억압이라는 아이디어를 계승하고 해방의 키워드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파이어스톤은 프로이트주의가 페미니즘과 동일선상에 있으며, 다만 여성에게 주어진 불평등한 성적 억압을 거부해야한다는 차별점을 두었다.⁸ 이처럼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논의들은 서로 다른 지점에 있으면서도 성 억압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억압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 푸코는 성에 대한 억압을 실체 없는 “믿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압의 가설(hypothèse répressive)”로 명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억압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함은 아니었다. 푸코의 목적은 억압의 논리와 해방의 구호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선동일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데 있었다. 그에게 성이란 침묵으로 억압받는 것이기보다 특정한 형태로 말하도록 부추겨진 결과였다. 엄격한 금지가 아닌 유용하다고 판단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규제와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문제제기는 서구사회에서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카가와는 일본 사회에서도 억압에 관한 역사적 “常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¹⁰ 전근대

6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열린책들, 1998), 235쪽.

7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나남출판, 2009).

8 슬라미스 파이어스톤 저, 김예숙 역, 『性の 변증법』(폴빛, 1983), 55-69쪽.

9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2010), 앞의 책, 30쪽.

10 赤川学, 『セクシュアリティの歴史社会学』(東京: 勁草書房, 1999), 70쪽.

자유로웠던 성이 메이지유신 이래 서구적 규범으로 통제되었으며, 제국주의 아래 억압이 존속되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더불어 전후 성규범이 완화되어 현재까지 성해방의 시대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상식이 일본사회 안에서 공유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성이 억압받아왔다는 의식은 한국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억압의 동인을 지목하는 방식에서 이른바 ‘한국적’ 특성이 드러난다. 서구의 논의들이 성을 다루는 근대적 지식(정신분석, 의학)의 형성에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많은 논의들은 전근대 문화적 유산에서 억압의 맥아를 찾고자 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논의가 (성)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에 대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치라는 경계에서 한국사회의 위치를 더듬어온 경향이 많았다.¹¹ “조선 시대 이래로 성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서구 문화의 영향 속에서 서서히 개방되어 왔다는 논리가 그것이다.”¹²

이러한 한국적 성윤리의 논리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활용되는데 남녀공학논의가 한 예이다. 미군정기 남녀공학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김미숙은 당시 공학 찬성론자들과 달리 반대론자의 기록은 찾기 힘들다고 회고했다.¹³ 그 이유로, 반대론자들이 “논리적 주장보다는 상식과 전통규범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역사를 가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역사적 가정을 비스듬히 피해가며 암묵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전략이 있다. 특히 젠더 문제의 배경을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규범으로 지목하는 주장들은 한국적 특수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 가부장적 구조가 유교적 전통 안에서 뿌리내린 것으로 상정했다.¹⁴ 특히 보수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11 최문기, 「성 윤리의 논변 비교」, 『倫理研究』 52호(2003).

12 류지한(2002), 앞의 책, 9쪽.

13 김미숙, 「미군정기의 남녀공학정책: 성별학교조직과 성통제 양식」, 『교육학연구』 39권 4호(2001), 103쪽.

성 자유주의, 가령 남녀공학제와 여권 신장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주장과 결합한 측면은 사회과학이 성윤리의 논의와 공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적 섹슈얼리티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가 유교라는 문화적 배경 아래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다는 상식에 대한 역사적 검토, 그리고 둘째, 상식의 활용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진 경유에 대한 이론적·정치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성혁명(sexual revolution)”이라는 구호를 개념사적 측면에서 검토한 마틴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⁵ 그는 성혁명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억압과 자유의 구호가 뒤엉키는 과정에 천착했다. 마틴은 1920년대 맑스주의 계보의 1차 성혁명과 1970년대 페미니즘을 필두로 한 2차 성혁명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억압으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개념(idea)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성혁명’이란, 당대의 성적 관습과 변화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불러들여진’ 개념적 용어였다. 이는 성이 사회적 산물이며 인간 정신의 발명품이라고 말한 워스나 억압 혹은 해방 그 자체도 하나의 선동된 담론일 수 있음을 제기한 푸코와 공명한다.

따라서 유교 문화의 영향력 아래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해왔다는 한국적 상식¹⁶ 또한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 유교주의 보수성 담론이 소환해 온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경구 역시 시대적 변화와 요구 속에서 구조화된 ‘개념’이었을지 모를 가능성을 점쳐 보게 되는 것이다. 성에 대한 담론의 폭발적 증가는 20세기 한국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중매

14 임현진·박순열, 「한국 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의 모색」, 『사회와 이론』 21권 2호(2012).

15 Martin, John Levi, “Structuring the sexual revolution”, *Theory and Society*, Vol. 25(1996).

16 주디스 버틀러는 서구의 억압 개념과 이항대립적 도식을 내세운 여성주의 이론들이 비서구의 문화를 식민화해온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문학동네, 2008), 89-90쪽.

체를 중심으로 확대된 섹슈얼리티 담론들은 논의의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초가 된다.

2. 연구의 방법

신문과 잡지 등 대중 매체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contents analysis)하였다. 대중 매체에 주목한 이유는 남녀칠세부동석의 활용법, 즉 어떠한 맥락과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레토릭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시간적으로는 민간 신문 및 잡지가 다시 등장한 1920년부터 자료 조사 종료일(2019.10.15)까지로 한정하였다. 1920년부터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1950년대까지는 그 이후의 시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아 대중잡지(동광, 별건곤, 삼천리, 여성계) 4건을 추가하였다.¹⁷ 조사결과 검색어 ‘부동석’을 포함하는 기사는 241건으로, 이 중 연재소설과 조선시대를 직접 지시하는 사례 등을 제외한 11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조사대상

매체명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광	별건곤	삼천리	여성계
발행기간	1920-	1920-	1946-	1988-	1926- 1956	1926- 1934	1929- 1942	1952- 1959
분석건수	63	12	23	6	5	3	3	2

17 잡지 「여성계」의 경우는 해방기 기사자료집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를 참고하였다. 이화형·허동현·유진월·맹문재·윤선자·이정희,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국학자료원, 2005).

시기(년대)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건수	16	25	3	10	8	20	10	17	8

본 연구가 백여 년에 이르는 다소 긴 시간을 고려한 것은 정치경제사적 시대 분류가 가진 논리적 완결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제강점기, 해방기, 산업화 시대, 밀레니얼 시대 등과 같은 연대 구분은 이미 그 자체로 모든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당대의 정치경제적 이슈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사상을 거대한 정치 이벤트와의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방법은 본 연구가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즉, 과거 속에서 현재의 맥락을 찾으려는 ‘한국적’, 내지는 ‘유교적’ 담론이 하나의 보편 상식으로 확립되는 과정은 어느 특정 시대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한 왜곡의 여지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의 목적이 의심의 여지없이 올바른 백 년의 개념사를 기술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수사전략의 ‘계보’를 통해, 우리의 성에 대한 의식이 과거와 연결되어있다는 사회적 상식과 믿음을 해체하고 그 너머 있을지 모를 정치적 선동의 의지들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Ⅲ. 배제와 분리의 수사학

1. 남녀평등과 배제의 수사학

19세기 말, 조선 근대화 논의와 함께 여성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개화지식인 박영효는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1888년,

일본에 체류하면서 작성한 『개화에 대한 상소(開化上疏)』와 『건백서(建白書)』를 통해 여성문제를 조선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했다.¹⁸ 유길준 역시 『서유견문(1895)』을 통해 모든 인민(人民)은 동등한 자유와 통의(通義)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근대적 무질서함에서 벗어나 문명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계몽의 논리는 서유견문에서 언급된 ‘폐풍악속(弊風惡俗)’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¹⁹ 박영효에 비해 온건적 태도로 개화를 촉구한 유길준의 입장과 서유견문의 논조를 고려해봤을 때²⁰, 폐풍악속이 곧 조선 사회 전체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조선이 문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내적 문제들을 환기시킴으로써 개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근대화의 논의가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은 또 다른 제약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성이 ‘국가’, ‘민족’, ‘가족’이라는 또 다른 중층적 의무 속에서 재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¹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의 필요성을 향한 목소리가 육아, 가사 등 특정한 성 역할을 부여하려는 의지들과 맞물리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²² 그렇지만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교육에 대한 논의 그 자체는 전근대 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양상으로 이어졌다.

1910년 강제병합과 함께 대한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리자, ‘조선’은 그 자체로 시대적 착오, 폐기해야 할 과거를 상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문제의

18 이현희, 『한국근대여성개회사』(한국학술정보, 2001), 33쪽.

19 유길준 저, 장인성 역, 『서유견문』(아카넷, 2017), 305쪽.

20 이배용, 「19세기 개화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韓國思想史學』 20권(2003), 147쪽.

21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2004), 앞의 책, 18쪽.

22 신성환, 「근대계몽기 여성의 호명과 교육, 그리고 『片片奇談警世歌』: <녀자교육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1호(2014).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조선의 흔적과 기억들을 끌어왔다. 이제 조선의 전통은 그 자체로 전근대적 ‘폐풍악속’을 상징하는 레토릭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1. 남녀의 同權은 인격의 對立.²³

남녀칠세에 부동석이라는 고훈을 버리고 절문 남녀가 相扶相携해야 사회의 공무에 종사하는 것을 가라쳐 남화하였다고 속단코자 함은 아니외다. 나의 소위 여자의 남성화라 함은 여자의 여자다운 본질적 내면성의 변화를 일음외다.²⁴

#6. 구여자된 설음.

(여자는) 안방구석에서 박갓을 말하지 아니하며, 남녀칠세에 부동석이라는 만고에 썩은 법문에 의하여 백일청천을 구경치 못하며 사람다운 생활을 못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법문에 억이면 곳 잡것이라는 죄명을 준다. 얼마나 썩은사회이며 죄악인가?²⁵

두 기사는 공통적으로 오랜 시간 여성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1920년의 기사(#1)

23 각 인용기사마다 매겨진 숫자는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117건의 기사를 시간 순으로 나열(#n)한 것이며, 따라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인용기사의 경우는 #n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 원문의 한자표기는 가급적 한글로 변환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표현은 내용의 이해를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띄어쓰기나 맞춤법은 최대한 그대로 옮겨 적었다. 헤드라인이 있는 일반 기사들의 경우는 구두점과 함께 제목을 기재하였으나 사설이나 오피니언 등의 경우 생략하였다. 이밖에 기사 중 ‘남녀칠세부동석’은 굵은 글씨로, 연구자의 강조 표시는 밑줄로 표기하였다.

24 《동아일보》, 1920년 4월 3일자.

25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자.

는 전문에서 여성의 “자유광명과 해방”을 “여성계의 일대승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고훈”을 “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1926년의 기사(#6)는 남녀칠세부동석을 “만고에 찍은 법문”으로 지목하며 보다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죄악”과 “찍은 사회”를 함축하는 지시어였다. 남녀칠세부동석의 철폐는 시대적 당면과제였지만 일순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22.

시대에 뒤떨어진 同俸네들이 尙今 가지고 잇는 관념-『성적 차이에 대한 반동적 과평가』에 있다. 다시 이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한다면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태고적 사상이 상급 조선의 민중을 강렬히 지배하고 있기때문에 至今에 잇서서는 아모리 하야도 녀성은 남성과 『부동석』 『不同組織』 하야야 하겟다는 것이다.²⁶

이 기사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은 “민중을 강렬히 지배”해온 “태고적” 사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랜 시간 개인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온 만큼 그것을 혁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다음의 두 기사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14. 여자교육의 보급과 향상

남녀칠세에 부동석이라는 말과 여자를 교육시키지 아니한다는 말과의 사이에는 하등의 인과관계가 업는것이 일고에 요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홀로 여자에게 대하여 교육을 주지아니할뿐만 아니라 여자로 일곱살만되면

26 《삼천리》, 1931년 9월호.

글방에 다니는 그의 형제와도 거처를 가티 못하게하고 격리시켜왔었다.²⁷

#23.

성에 관한 모든 제도는 생물과 같이 오란 것이요, 인류의 사회조직을 유지발 전케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모든 제도를 규범하는 제도덕률중 가장 근본적인 것 [...] 조선에 있어서도 성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 대변혁을 經하고 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의 구도덕은 여자교육의 진전과 동시에 깨트러지고 말았다.**²⁸

1929년의 기사(#14)는 여성이 오랫동안 교육에서 배제된 원인으로 남녀 칠세부동석을 지목하고 있다. 한편 1931년의 기사(#23)에서는 남녀칠세부 동석과 여성교육의 관계가 역전되어 나타나는데, “여자교육의 진진”이 남녀칠세부동석을 깨뜨린 중요한 계기로 지목되고 있다. 두 기사는 남녀칠 세부동석과 여성교육을 이항대립시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과거-현재, 선조-우리, 구도덕-변혁의 대립구도 속에서 여성교육을 “인류” 의 “발전”과 동일시하여 그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신-구 대립의 원리는 신여성과 구여성의 대비 속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35.

조선에 있어서 우리 구여성이란 옛날부터 남존여비란 묵어빠진 관념과 三從之道나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낡새나는 사상에 지배를 굳게 받았음으로 해서 정말로 음울하고 적막한 뒤스방구석에서 인생사회에 眞亡盛衰와 榮枯憂樂 을 모르고 醉生夢死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도 보냈지요. (...) 우리들 (구여성)에게 아무조록 **신여성**측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워야 하겠소.²⁹

27 《동아일보》, 1929년 3월 27일자.

28 《동광》, 1931년 12월호.

29 《삼천리》, 1936년 2월호.

1936년, 잡지 《삼천리》는 신여성과 구여성이 함께하는 좌담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35). 신·구여성의 의식적 차이 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구여성은 스스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냄새나는 사상의 지배”의 희생양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뒤스방구석”에서 “인생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신여성의 “지도”를 간청하고 있다. 좌담의 전체 내용에서 신·구여성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유교 문화가 여성의 삶을 옥죄어 왔으며 이러한 과거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남녀칠세부동석을 불러낸 기사와 발언들은 시대적 과업과 과거의 잔재를 대비시킴으로써 변화를 촉구했다. 시대적 과업이란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 사회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었다. 반대로 과거는 사회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불평등한 사회였으며, 남녀칠세부동석은 불평등과 여성배제를 함축하는 레토릭이었다. 그런데 1930년을 전후로 남녀칠세부동석의 또 다른 지시적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2.

재래의 습관으로 말하면 **남녀가 7세면 부동석**이라 하여 남자와 여자는 **접촉을 금하고 對語**를 피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추세와 주위의 사정은 언제까지나 남녀의 관계가 이와 가튼 상태하에 있는 것을 **許**하지 안게 되었다. 금후 인류의 문화는 모든 점에 대하여 남녀가 힘을 합하고 장단을 서로 **補足**하여 **一致並進** 하지 안으면 안될 것이오.....³⁰

위 기사(#12)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은 여전히 “재래의 습관”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지시적 의미에서 앞선 사례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을 사회적으

30 《별건곤》, 1929년 2월호.

로 '배제'하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접촉을 금"하는 '분리'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의 이중적 의미는 특히 남녀의 평등교육을 넘어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16. 조선교육의 결합.

시급한 운동은 남녀공학운동이다. **“남녀칠세부동석”** 사상을 장사해버린지는 조선에서도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이다. (...) 남녀공학은 우리에게 당면된 특수문제뿐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학상 아니 전인류의 생활상 자연법칙에 의하여 당연히 잇서야할 것이다. (...) 우리는 지난 30년간에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칙칙을 깨트려부시기에 성공하였다. 이제 공학을 실시함에 도 오직 용단과 선봉대가 필요하다.³¹

위 기사(#16)는 새 시대의 당면문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앞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기사들과 동일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사회는 근대로 진입했지만 교육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결합”이 있으며 따라서 변화를 향한 “용단”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남녀칠세부동석의 이중적 의미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해 온 남녀칠세부동석은 이미 “장사해버린”지 오래이며, “깨트려부시기에 성공”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남녀분리의 법칙, 남녀칠세부동석을 타파하기 위한 “선봉대”가 필요하며, 남녀공학은 그 실천의 일환이었다. 즉, 여성의 배제를 넘어 남녀의 분리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31 《동아일보》, 1930년 9월 11일자.

#30. 신시대의 전망 - 명일의 남녀관계.

명일의 조선에 있어서의 남녀관계 그것은 또한 당분간 혼란상태를 계속하리라. (...) 남여부동석의 내외율이 완전히 없이질때까지. 그리하여 여자해방의 행진곡은 자못소리크게 떨치리라. 그것에 따라서 남녀평등권의 주장은 모든 사회문화의 영역에 큰 파문을 일으킬것이 틀림없을 것이다.³²

#31. 반드시 지켜야할 남녀교제법.

예전부터 조선에는 (...) 남녀칠세부동석이었으나 남녀교제할때는 이러케 하라는 가르침이없이 시대가 흐르고 (...) 왕왕실수되는일이 적지아니합니다.³³

1935년 같은 해 등장한 위의 두 기사 중 6월 2일자(#30)는 “남녀관계”라는 표현을, 10월 1일자(#31)에서는 “남녀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30)의 경우 남여칠세부동석이 “여자해방”, “남녀평등”의 대립항으로 제시되는 반면, 10월 1일자 기사(#31)에서는 자유로운 이성 “교제”와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1930년대부터 남여칠세부동석이라는 경구에는 배제와 분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서서히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후자의 의미인 이성문제, 즉 분리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이후에 이르러서였다. 1920년대에는 남여평등과 여성교육의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배제의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해방 이후로는 댄스홀이나 풍기문제와 같은 이슈 속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32 《동아일보》, 1935년 6월 2일자.

33 《동아일보》, 1935년 10월 1일자.

2. 풍기문제와 분리의 수사학

일본의 패망과 함께 미군정이 주둔하면서 한국 사회의 방향타는 서구 사회를 향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이식되거나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수용과 거부라는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그 원인과 책임공방을 다투는 논의들도 활발해졌다. 대표적으로 학생남녀의 자유 교제와 풍기문제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남녀칠세부동석이 다시금 소환되었다.

#46. 사조변천에 대처하라.

학생풍기문제는 (...) 우선 전쟁과 함께 휩쓸려온 외국의 색다른 풍속이 급속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 가정에서 부모분위의 가정생활을 점진적으로 양보하고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묵은고집을 버리고 그들의 생리적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젊은이들이 회합하는 회식하는 점잖은 기회들 주어 남의 나라의 청년들같이 마치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남녀아동들이 천진하게 섞여놀수 있는것같이 하여야겠다.³⁴

기사(#46)는 “사조변천”이라는 흐름을 강조하면서 남녀가 “회합”하고 “섞여 놀 수 있는” 사회로의 이전을 주장한다. 주목할 부분은 “학생풍기문제”의 원인이다. 새로운 사조가 풍기문제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묵은 고집”이다. 다시 말해 이성간의 회합 그 자체는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며, 남녀를 분리시켜온 구습을 극복함으로써 풍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34 《동아일보》, 1954년 6월 6일자.

이 기사는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남녀칠세부동석이 새 시대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남녀칠세부동석의 지시적 의미는 여성을 배제하는 전근대의 원리에서 벗어나 남녀의 분리 문제라는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는 비단 학생 교제 논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해방과 함께 여성의 성생활, 특히 여성 성욕이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킨제이(A.Kinsey)의 연구가 국내에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³⁵ 과거 성에 대한 근대적 지식들이 주로 남성 성욕의 이해와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킨제이의 『未婚女性の 性行爲: 킨센이 報告解説(1957)』는 그 제목의 번역에서 드러나듯이 여성의 성을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³⁶ 이러한 당대의 분위기는 한 여성지의 칼럼에서도 묻어나오고 있다.

35 요사이 문제가 되는 「여성의 성행위」의 보고서가 나와서 세계적으로 큰 쟁세이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킨세이 박사의 「여성의 성행위」보고서는 사실은 연구가 다 끝나고 발표 준비가 다 되어진 후에도 그것을 공적으로 발표하는데는 삼년이나 말성이 되다가 발표가 늦어졌다고한다. 그 이유로는 만일 이 보고서가 그대로 발표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새가정》, 1954년 2월호.

36 여성의 성욕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이미 시작되었다. 일본 성과학(sexology) 서적이 1920년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광고가 신문에 자주 게재되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성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가 사와다 준지로(澤田順次郎)의 『처녀와 부인의 성적생활(處女及妻の性的生活)』(1923)로, 《동아일보》 1923년 7월 16일자에 서적광고가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여자육체의 구조, 성적 작용, 성욕 발작 등을 노골로 설명한 [...]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의 동작을 밀도입(密圖人)으로 상세히 해부설명한 최신쾌작'. 광고 내용을 고려해보면 당시 여성의 성욕이란 주로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환기시키는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성욕이 사회적 차원의 수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킨제이 보고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여성성욕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각주4)를 참조, 『처녀와 부인의 성적생활』과 같은 당대 성과학 서적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배홍철, 「한국 1920년대, 나체화를 둘러싼 예술과 외설의 사회적 의미」, 『한국학』 36권 4호(2013), 215쪽.

섹스란 어두운 번민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청춘을 즐길 방도는 없는가? <생리적으로 성숙한 욕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하라는 주문이다. 즉 성욕의 발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과의 접촉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길이란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성과의 그러한 접촉은 <결혼>을 통하여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접촉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는 죄악시되고 있는 터이므로 여기서 미혼청년들의 <섹스>로 인한 고민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여성성욕의 논의는 미군의 주둔과 함께 유행한 댄스홀과 결합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당시 서울지방부장관사였던 이광석(李光錫)은 사교댄스가 성욕을 자극한다 하더라도 댄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댄스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폐단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³⁸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듯 댄스홀에 빠진 기혼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1954)』이 논란과 인기를 동시에 끌었다. 한편, 1955년에는 박인수라는 남성이 군인 장교를 사칭하며 댄스홀에서 만난 수십 명의 여성과 동침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올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를

37 《女苑》, 1960년 8월호.

38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하고자 하는일을 폐단이 간혹 따른다 해서 그것을 막을것도 아니고 막는다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교댄스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그폐를 적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우리 생활환경에 잘안맞는 사교댄스가 단시일에 널리 퍼지게되니 조화가 잘안되고 잘 소화못한점도 있어 폐단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교댄스 자체가 더럽고 야비하여 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성욕이 동기가 되어 많은 악이 발생한다 해서** 인생의 기본적행복을 주는 가장 큰 동력의 하나인 성욕을 부정하고 악이라 부를수는 없는 것과 같다. 《여성계》, 1957년 6월호.

계기로 한국 사회의 ‘풍기문제’를 정조준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47. 무너지는 성도덕, 흐려지는 정조관념을 어떻게 바로잡나.

사교니 학교교육이니 사상의 표현 등 모든 면이 개방적이면서 이와 병행하여 성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이 넘는 남녀학생이 한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자유로히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면서 성에 대한 지식이란 아직도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시대와 똑같은 것이라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가질 수 없는 원인이 될 것이다.³⁹

#49. 학생풍기문제를 얘기하는 좌담회.

(권중휘 서울대 학생처장의 발언 中⁴⁰) 일반에서 풍기라는 것을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아직 확실히 잘 모르는데 주로 성도덕문제에 관련이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3, 40년 전의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도덕기준 그대로 맞추어 나가야될것이나 안될것이나 하는 점이 좀 의문인데 우리의 머리를 좀 고쳐야될지 지금 학생의 행실을 교정해야할지 (...) 서로 조금씩 교정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⁴¹

두 기사(#47, #49)는 박인수 사건 직후 등장한 풍기문제 기사들로, 한 달여 동안 남녀칠세부동석이 3회 등장하였다.⁴² 6월 23일자 기사(#47)에서는 남녀칠세부동석의 두 가지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났다. 여성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의미의 남녀칠세부동석은 극복했지만 “성에 대한 지식”, 즉 이성

39 《동아일보》, 1955년 6월 23일자.

40 권중휘는 반면 1955년 7월 21일자에서는 한국적 정조관념(정조의 고수)를 지지하면서도 남녀가 내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새로운 대안, 즉 한국적 정서가 고려된 제3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1 《동아일보》, 1955년 7월 19일자.

42 두 기사 외 《동아일보》, 1955년 7월 16일자에도 남녀칠세부동석이 등장했다.

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게 만든 분리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한다.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풍기문제를 염려하면서도 문제의 원인이 성의 자유나 개방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낡은 윤리”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박인수 사건’은 남성인 박인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젊은 여성들의 몸가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성윤리의 이중성, 즉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반대로 그 이중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50. 오늘의정조문제비판.

유교윤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정조대를 채우고 열쇠는 그 남편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쾌락을 봉쇄당하고 억제생활로 일관하여야 했던 여성들은 그 정조대가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자각한 것입니다. (...) 사실 공자가 우리들과 같은 세대의 인물이라면 「남녀칠세부동석」의 윤리를 내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쾌락에 대한 동경도 같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여자들에게만 「정조」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인지.⁴³

위 기사(#50)는 여성의 “쾌락”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여성에게만 강요된 “정조”관념과 성욕의 억압이 “유교윤리”, 남녀칠세부동석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한다. 강점기 남녀평등 논의에서 여성의 사회적 배제를 의미한 남녀칠세부동석은 이제 여성 성욕의 억압원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에로영화의 유행과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와 맞물리며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제 남녀칠세부동석은 성(性)적 문제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43 《여성계》, 1958년 4월호.

#60. 음란의 한계는?

(에로영화 에로문학에 대한 단속에 대해) 남녀7세 부동석과 같은 낮은 도덕 관으로 오늘을 규제하려 든다면 난센스라는 의견도 많다.⁴⁴

#62. 한국인의 부부관계.

성이란 결코 죄악시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비교적 성적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자유스러웠으나 이조의 유교사상은 계층적 상류사회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을 깊이 강조하고 성적충동, 외면적 접촉을 금지함으로써 억압해 보려던 노력은 “성은 나쁜 것이다”라는 타부를 낳게 되었다.⁴⁵

1970년을 전후로 한 두 기사(#60, #62)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경구는 성욕, 성생활, 성적 호기심 등과 호응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은 배제의 의미로부터 멀어지고 분리의 레토릭과 밀착하게 되었다. 1980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다룬 동아일보 특집기사는 의미의 이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85. 한국인 가치관 달라졌다 10년간의 의식변화조사.

집안일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엇보이는데 “여자라도 똑똑하면 말을 수 있다”가 61%로 71년의 53%를 앞질렀다.⁴⁶ 또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욕구는 재산상속에서도 나타나 “딸에게도 나눠줘야한다”에 79%(71년에는 69%)의 압도적 다수가 응답했다. (...) 보수적 측면으로 등장한

44 《경향신문》, 1969년 7월 17일자.

45 《경향신문》, 1973년 3월 22일자.

46 여기서 ‘집안일’이란 문맥상 가사(household affair)가 아닌 가부장제 제도에서 남성이 독점해 온 가정 내 주요 대소사의 결정권 내지는 경제권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것은 **남녀칠세부동석**을 우리의 좋은 풍속(40%)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4% 증가한 점. 그러나 많은 사람(60%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대답했다.⁴⁷

이 기사(#84)는 1971년과 1980년 각각 1,800명과 1,2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를 통해 10여 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의 내용은 남녀평등과 이성관계에 대한 인식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 기사는 “여성의 지위향상” 의식이 “진취적”으로 변화했지만 “풍속”문제는 “보수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지위”와 “풍속”이라는 단절된 두 개의 영역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은 후자인 풍속의 영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전환은 1980년 이후 남녀칠세부동석이 등장한 기사들의 헤드라인(표2)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2의 33건 중 남녀의 평등에 초점을 맞춘 기사는 「성차별 없는 놀이교육(1994.2.7)」, 「한교실서 싹트는 남녀평등(1996.4.1)」, 「우리선생님 앞치마 두른 남학생들(1996.12.13)」 등의 3건이다.⁴⁸ 이 외 기사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은 이성 교제와 성생활, 성문화 등의 논의 안에서 활용되고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잔재라는 관점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 지시적 의미는 성적 문제 안에서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레토릭은 성문화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규정하는 의미로 범용성을 갖게 된 것이다.

47 《동아일보》, 1980년 12월 16일자.

48 2018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모든 ‘미투’는 정의로운가?」는 여성권리신장의 측면에서 등장하지만, 남녀칠세부동석이 ‘펜스룰’이라는 물리적 분리와 함께 이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표2-1980년 이후 '부동석' 키워드의 기사 목록

연도	일자	매체명	헤드라인
1980	12.16.	동아일보	한국인 가치관 달라졌다 10년간의 의식 변화 조사
1983	5.3.	동아일보	감춰오던 "성"에서 가르치는 "성"으로
1984	3.31.	경향신문	남녀혼성교실
1985	9.17.	동아일보	젊은이 광장 세대 꼬집는 대학가 은어
1988	7.28.	동아일보	황설수설
	10.26.	동아일보	여성의 순결 일방적 강요 문제 있다
1989	4.10.	동아일보	어린이들 이성관심
	10.25.	동아일보	조선시대 부덕(婦德) 본받을 점 많다
1991	10.22.	한겨레	청소년문제 해결의 실마리
1994	2.7.	동아일보	성차별 없는 놀이교육 바람직
1995	10.20.	조선일보	남녀부동석 카페 아세요
1996	4.1.	동아일보	한교실서 싹트는 남녀평등
	6.7.	동아일보	중고교 남녀합반
	6.25.	동아일보	지금 PC통신에선 비디오판 청소년출입
	7.9.	동아일보	우리의 자녀는…… 10대 "위기의 성" 집중조명
	7.20.	동아일보	서양식 성교육보다 동양적 윤리교육부터
	9.13.	동아일보	비뚤어진 성문화가 문제…… 단속 효과없어
	9.20.	조선일보	애정낭비
	10.11.	동아일보	지금 PC통신에선 이성사이의 우정
	11.2.	동아일보	모두가 어린이의 교사다
	12.13.	한겨레	우리선생님 앞치마 두른 남학생들
1997	3.24.	한겨레	대담한 성교육 첫 교과서
	3.28.	한겨레	이나미가 본 사랑과 결혼 남녀간 우정 네가지 유형
	5.2.	한겨레	이성의 벽이 무너진다 남녀칠세 부동석?
1999	11.20.	조선일보	아나기 현장
2001	10.24.	조선일보	아내의 '남친' 남편의 '여친'
	11.27.	조선일보	초등생도 '커플 링 시대'
2002	5.14.	조선일보	인터넷이 '어둠의 장난감' 될 때
2003	11.29.	조선일보	'청소년의 성'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2005	6.19.	한겨레	어릴수록 '원초적 본능' 조절 힘들답니다
2013	5.23.	조선일보	대한민국 정부의 '남녀칠세부동석' 해법
2015	1.30.	조선일보	성군기 대책은 '남녀군인不同席(부동석)?
2018	3.17.	조선일보	모든 '미투'는 정의로우나?

IV. 전술적 활용

앞서 살펴본 기사 대다수는 과거를 극복하고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들을 보여주었다. 팔목할 점은 '부동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 중에 남녀칠세부동석을 긍정적 형태로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경구' 그 자체는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닌 지우려는 의지들에 의해 소환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칠세부동석이 실제 없는 허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변화를 촉구하는 의지들이 이 경구를 어떻게 도구적으로 활용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유교주의 보수성 담론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실천의 방향으로 독자를 이끌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고민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이항대립의 전술

앞선 사례를 통해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경구가 극복해야 할 구습의 대명사로 활용된 동시에 시대적 배경에 따라 세부적인 의미가 변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남녀칠세부동석은 '과거'이자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앞에 놓인 '현재'의 걸림돌을 의미했다. 기사들은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 속에서 독자를 설득하고자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구습'과 '선진'이라는 이항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남녀공학 문제였다. 분석대상 117건 중 남녀공학을 지목한 기사는 12건(표3)으로, 이 중 다수는 단성(單性)·별학(別學)교육과 공학교육 논의를 구습과 선진제도의 대립 구도 안에서 이끌어갔다.

표3- 남녀공학 관련 기사 목록

일자	매체	헤드라인
1929.2.1.	별건곤	학교와 가정의 시급 문제 성교육 실시 방책
1930.9.11.	동아일보	조선교육의 결함
1931.5.9.	동아일보	정조의 장래, 교제의 도덕
1934.5.8.	동아일보	남녀의 공학문제
1956.11.29.	경향신문	사설(남녀공학문제)
1959.7.10.	동아일보	남녀공학의 이상, 서구적 성격과 한국의 현실
1966.7.1.	경향신문	사설
1968.6.4.	조선일보	서울새풍속도, 남녀부동석서 싹튼 妙方
1973.4.9.	동아일보	중고교 남녀공학의 공과
1996.4.1.	동아일보	한교실서 싹트는 남녀평등
1996.6.7.	동아일보	중고교 남녀합반(찬반)
1997.5.2.	한겨레	10대들의 세상 이성의 벽이 무너진다

#28. 남녀의 공학문제, 풍기정화상 그 효과여하.

선진사회, 특히 서양에서는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률로 남녀공학제를 시행하여 오는 중이다. (...) 물론 조선과 같이 **남녀칠세부동석**의 유교사상이 아직 근절되지 않은 사회에서 별안간 남녀공학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 초창의 어느 시기까지는 남녀의 풍기가 훨씬 더 문란하게 될 것은 필연의 사실이다. (...) 최초의 어느 기간까지는 반듯이 받게 될 **다소의 희생**을 처음부터 각오하면서 남녀공학제를 단행하는 것이 사회의 영원한 장래를 위하여 풍기정화상 더많은 효과를 수확하게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바이다.⁴⁹

1934년의 기사(#28)는 한국 사회에서 남녀공학제의 도입이 “다소의 희생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원인은 남녀공학 제도 그 자체가 아닌 변화를 거부하는 과거의 잔재에 있다. “근절

49 《동아일보》, 1934년 5월 8일자.

되지 않은 남녀칠세부동석의 유교사상”이 오히려 남녀공학의 부작용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40년 뒤인 1973년 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63. 중고교 남녀공학의 공과.

남녀공학의 공과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조사와 논란이 거듭돼왔으나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동양전래의 관념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엔 아직도 남녀공학 특히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남아있는 것 같다. (...)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남녀공학이 「바람직스럽다」는 공통된 연구결과에 따라 점차 이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 과연 남녀공학의 장단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공학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일선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모아 「남녀공학」을 몇가지 문제별로 살펴본다.....⁵⁰

위 기사(#63)는 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서울과 부산의 남녀공학고교들이 단성고교로 개편되는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작성자는 남녀공학의 “공과”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학 폐지 결정을 “서운함 속에서” 지켜보며 공학제의 장점을 호소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1973년의 기사(#63)는 1934년의 사례(#28)와 마찬가지로 “선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공학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공학제도 폐지는 학부모들이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전래의 관념”에 붙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부모들의 반대 행위는 자연스럽게 “조류의 역행”으로 이어지고 “전래”와 “선진”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다. 기사는 전문에서 공학제도에 우호적인 교육전문가 및 교사의 발언을 다채롭게 인용하며 공학제의 당위성을 환기

50 《동아일보》, 1973년 4월 9일자.

시킨다. 반면 공학제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남녀공학 반대론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반대론자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며, 주로 “비논리적”, “전통” 등으로 결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술(記述)은 일부 기사에만 국한되어온 것이 아니었다.

미군정기 공학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김미숙은 당시 남녀공학 찬성론자들과 달리 반대론자의 기록은 찾기 힘들다고 기술했다.⁵¹ 그 이유로 반대론자들이 “논리적 주장보다는 상식과 전통규범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추측에 기대어 공학반대론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학 반대론이 전통적 규범 안에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교육학자 왕학수는 남녀공학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52. 남녀공학의 이상, 서구적 성격과 한국.

남녀가 한자리에서 학문을 배우고 진리를 탐구하며 상호조력하여 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남녀공학」이라 할진대 동양에 있어서는 고래로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였으니 문제도 되지 않는다. (…)

(반대하는 전문가들은)양성이 일찍부터의 공동생활 특히 양성이 모두 사리를 판단할만한 이성이 채 발달하지 못한 시기, 즉 본능적 욕구가 지배적인 연령, 특히 사춘기의 양성의 공동생활은 양성이 지닌 본연의 특색을 발표시키지 못하고 「중성적」인 변형을 만들든가, 아니면 조속한 성생활, 성충동을 조장하여 불미불행한 결과를 초래케된다는 것이다. (…)

해방과 더불어 주로 미국의 학제와 학풍이 이식됨은 (…) 당연한 추세였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남녀공학이 「새것」, 「진보된 것」, 「미래의 것」이라는 매력에서 도입되었다. (…) 그러나 한국의 남녀공학은 그 내적인 형태(교육적,

51 김미숙(2001), 앞의 논문, 103쪽.

심리적)에 있어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외적인 작용(사회적전통적 풍습)도 특별한 면이 있는 만큼 서구적인 그것과는 좀 다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 초등학교에서는 전학년에 걸쳐 남녀혼성의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중학교 특히 사춘기인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남녀별학을 원칙으로 하여 본능적인 충동을 교육적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이성과 지혜가 발달되어 자기의 위치와.....⁵²

위 기사(#52)에서 왕학수는 공학 찬성론의 전술을 그대로 전복시킨다. 남녀공학이 「새것」, 「진보된 것」, 「미래의 것」이라는 「매력」에 이끌려 감정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고, 공학의 문제점을 「내적인 형태」와 「외적인 작용」으로 분류해 논지를 강화했다. 그는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중점적 이유로 「전통풍습」인 외적인 작용보다 내적인 형태에 집중했는데, 그가 활용하고 있는 교육전문가의 관점은 남녀학생의 「본능적 욕구」에 대한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능적 「충동」을 관리하기 위해 단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왕학수의 주장은 개인적 생각이라거나 새로운 논리가 아니었다. 본능적 충동의 제어를 위한 성별분리라는 관점은 근대 일본이 단성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08년 요미우리 신문이 주관한 성욕문제 좌담회에서는 아동성욕, (학생들의)자위·일탈문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⁵³ 이 좌담회는 사회적 관습을 철저히 거부하고, 부모의 관찰, 교육자의 진단, 실증적 데이터와 같은 「과학적」 방법에 의거한 근대 지식을 표방했다. 좌담회에서 료 미나미 제1고등학교(현 도쿄대 교양

52 《동아일보》, 1959년 7월 10일자. 이 기사는 10일과 11일에 걸쳐 게재되었다.

53 Frühstück, Sabine, *Colonizing sex*(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 59.

학부) 교장은 “성욕의 폭발은 폭풍 같은 강력한 것이며, 젊은 남성들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폭풍 속의 가라앉는 배’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 학생의 성욕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호소했다.⁵⁴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학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자를 남녀 칠세부동석과 연결시켰던 것은 왕학수가 지적했듯이 새것, 미래라는 키워드와 대비를 일으켜 설득력을 높이려 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은 말 그대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는 원리 그 자체로 소환되었다기보다는, 버려야 할 것, 오래된 것, 과거를 지시하는 수사적 도구였다. 이러한 전술은 해방 이후의 기사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강점기가 아닌 전근대에서 찾는 시도로

54 한국 미군정기 학무국장이었던 라카드는 남녀공학이 폐지된 뒤 “한국인들이 일본 교육에 몰들어 있기 때문에 미국교육과 문화를 이해하고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처럼 근대기 한국의 단성교육을 추진했던 것은 일본이었다. 1909년, 식민 통치를 목전에 둔 시기 학부 학무국 학무 제2과 과장 구마모토 시게기치(畏本繁吉) 서기관은 한국 내 교육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보통 학교에 있어서 여자의 취학은 무엇보다 장려해야 할 일에 속하지만 한국의 관습으로는 남녀를 같은 교실에 두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다. 기록만 보면 강점기 우리 사회에서 단성교육이 실시된 배경을 한국의 관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식민지 기간 국내에서 남녀공학은 실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를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한국적 관습과의 타협으로 단정하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일본이 근대화의 명목으로 조선의 관습을 재단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역시 194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학교 1·2학년울 제외하면 단성교육을 고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 속에서 일본에 의해 추진된 식민지 단성학교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있다는 주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學部, 『韓國教育』(1909), 32쪽. 근대 일본의 공학과 단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小口 功, 『日本における男女共学の成立と展開の分析視點』, 『近畿大学教育論叢』 26권 1호(2014); 小稲 繪梨奈, 『日本における男女共学論の歴史と背景: 小泉郁子の思想』, 『教育学研究論集』 7호(2012).

이러하게 되었다.⁵⁵

#44. 현대여성의 복장고.

“복장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이라하여 (...) 몸을 깊숙하게 꾸려 深窓에서 별을받지 못하고 자람이 부녀의 숙덕이라한 것 (...) 외국에서도 특히 구미선진국에서는 낮에는길게 입지않으며 또 절대로 길게입고는 외출하지를 않는다. (...) 나는 비과학적인 복장제도를 구지 고집하고 싶지는 않다. 세계각국을 보드라도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모두 이러한 경향을 해나간다는 것도 부언해두고싶다.⁵⁶

제국 일본이 사라진 자리를 서구사회가 차지하면서 서양으로 대변되는 “세계각국”의 문화가 “현대”의 기준이 되었다. 위 기사(#44)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탐색하면서 35년의 식민기간을 스스로 지워내고 전근대의 시간과 연결시키고 있다.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전근대의 잔재에서 찾으려는 의지 속에서 유교의 경구는 다시금 소환되고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은 “비과학적”이지만 극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회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전근대-근대(현대), 구습-선진의 이항대립은 남녀평등, 남녀공학, 자유교제 등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키워드(표4)로 치환되어 등장했다.

표4-이항대립의 키워드

남녀칠세부동석	탈-남녀칠세부동석
과거, 구습, 악습, 유교사상, 썩은 사회, 죄악, 재래의 습관, 범새나는 사상, 원통한 세월, 비과학, 묵은 고집, 낡은 윤리, 골동품, 억압, 케케묵음, 남존여비, 보수적	문명, 현대, 선진, 전진, 자연법칙, 내일, 해방, 평등, 과학, 개방, 올바름, 양성화, 진취적

55 연구대상이 ‘부동석’이라는 전근대의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들에 국한된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6 《경향신문》, 1947년 3월 9일자.

이러한 대립은 억압담론들의 전술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억압과의 대립관계를 설정하고, 해방의 당위성을 피력했던 담론들과 유사한 논리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여 억압이 실재하지 않는 선동된 담론에 불과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항대립의 전술 속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은 구체화 되었으며, 그것이 실재한다는 믿음 역시 공고화되었다는 사실이다.

2. 역사발전의 전술

구습-선진이라는 대립구도 안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은 공공의 적으로 거둬냈지만 그럼에도 좀처럼 불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사라질 수 없게 되었다. 대립을 역사의 발전단계로 이해하면서, ‘탈-’남녀칠세부동석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선행 역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모순이야 말로 진보의 조건이라는 논리가 적용되면서 남녀칠세부동석은 구체화되고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다.

#39. 상해남경의 신여성, 우오른대학 교수에서 여순사에 일하기까지.

오늘 上海市中으로 나가 보았더니 (...) 중국 사회에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가 함을 알고 놀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순사나 여세관이 아직 조선에 있습니까 동경엔들 있습니까? (...) 그런데 여기 상해에는 아조 수두룩합니다. (...) 상해, 남경 등 큰 도시의 인테리 여성의 머리에는 「**남녀칠세부동석**」 등의 공자교적 도덕률은 완전히 없어졌으니 그도 그럴 것 아닙니까.⁵⁷

57 《삼천리》, 1937년 10월 1일자.

위 기사(#39)는 남녀칠세부동석을 극복한 사회(상해, 남경)와 그렇지 못한 사회(조선, 동경)을 대비시키고 있다.⁵⁸ 기사 안에서 조선과 중국은 역사를 발전과정으로 이해하는 선형구조 위에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맺고 있다. “공자교(유교)”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있었지만 중국은 남녀칠세부동석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역사의 발전을 이룬 반면 조선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구습-선진의 대립구조가 역사의 발전 모델 속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특히 성에 대한 세대간 의식차이를 다룰 때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71. 남녀칠세시동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엄격한 유교적 윤리관속에서 자라왔다. (...)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아이가 7살이 되어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공교롭게도 남녀를 짝지어 한자리에 앉힌다. 즉 남녀칠세시(始)동석하는 셈이다. (...)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여기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남녀칠세부동석**을 고수하려는 층은 경제력과 실권을 잡고 있고 남녀칠세시동석한 층은 이제막 팽창하려는 단계에 있다.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쩔수 없이 남녀칠세시동석 한 젊은세대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손할 정도로 대담하고 망측할 정도로 솔직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은 없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에서 발전돼 왔으니 말이다.⁵⁹

58 1945년 이전 분석대상 기사 중 해외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특히 중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일한 문화권, 특히 유교가 발생한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상을 소개함으로써 조선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30년 11월 29일자 「중국첨단 여성 맹렬한 그들의 활약」 기사와 《동광》 1931년 2월호 「革命中國 新女性들의活躍」을 참조할 것.

59 《경향신문》, 1977년 5월 2일자.

한 민속학자의 기고문인 위 기사는 신구 세대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석”의 구세대는 여전히 강력하며 “시동석” 세대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기고자는 신구의 투쟁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며,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모순의 극복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이라는 사적 변증법의 논리를 내세운다. 이 기사는 탈-남녀칠세부동석의 당위성을 서구 등의 외부에서 찾아온 앞선 기사들과는 달리 내적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모색하고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세대 간 투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투쟁의 원인은 여전히 남녀칠세부동석에 고착되어있다는 점이다.

#3.

남녀칠세면 부동석이라하며 성적교제를 죄악시함은 우리네 부형이 이말을 드르면 과연 경약의 여에 다시한번 말세의 탄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네의 자녀 가 결혼생활을 한 이후로 모든 실패가 중본하는 것을 볼때에.....⁶⁰

#76.

여러해 전부터 대학생들 사이에 미팅풍속이 유행하고 있다. (...) 지금의 부모들이 자라날 때만 해도 **남녀칠세부동석**의 유풍은 강하게 남아 있어서 (...) 부모들은 자신들의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미팅이 건전한 것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⁶¹

#114.

우리 기성세대 대부분은 이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 대신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도덕관념 속에서 성장했다.....⁶²

60 《동아일보》, 1920년 8월 17일자.

61 《동아일보》, 1979년 3월 24일자.

62 《조선일보》, 2003년 11월 29일자.

1920년(#3), 1979년(#76), 2003년(#114)의 세 기사 사이에는 80여 년의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동일한 논리가 나타난다. 기성세대는 남녀칠세부동석을 대변하고 새로운 세대는 이와 대립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는 다음 세대와 다시 대립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한때 남녀칠세부동석의 구세대와 대립했던 세대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남녀칠세부동석을 대변하는 구세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논법 속에서 한국 사회는 과거로부터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녀칠세부동석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 속에서 과거는 현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활용되면서, 제약이야말로 진보의 조건이라는 논리와 공명한다.⁶³ 즉 남녀칠세부동석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추진의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66. 사춘기의 순결교실<11>

우리나라의 경우 이조5백년 동안의 유교사상은 남존여비로 남녀를 구분해 놓았고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해서 어릴때부터 남녀의 교제를 엄하게 규제해 왔다. (...) 남녀평등 사조의 도입으로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사고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겠다. (...) 남녀의 모임을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장려해 주어 **양성화**시켜야하고 자녀들이 자기 신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모나 선생에게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⁴

위 기사 역시 세대갈등이라는 내적 모순을 통해 역사 변증법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작성자는 남녀칠세부동석을 떨쳐내고 남녀 교제의 “양성화”

63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2009), 앞의 책.

64 《경향신문》, 1975년 12월 1일자.

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남녀칠세부동석은 파기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 목표는 성의 완전한 해방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성에 관해 “상의”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성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규제”가 아닌 고백을 통한 “양성화”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서 남녀칠세부동석은 새로운 규범, 즉 성을 다루는 새로운 관리 방식을 권유하기 위한 구도 안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푸코의 지적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성이 규제(억압)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성이 규제되어왔다는 주장 역시 또 다른 형태로 성을 관리하려는 의지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담론들의 투쟁 속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전술적 도구의 이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레토릭의 활용 속에서 한국적 유교주의 보수성 담론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경구의 지시적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20세기 초,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성 불평등을 조장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배제의 원리였다. 이후 사회풍기문제와 결합하면서 이성간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의 원리로 확장되었으며 서서히 후자의 영역으로 기울었다. 둘째, 남녀칠세부동석은 ‘구습’과 ‘선진’이라는 이항대립 전술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 부조리이자 모순이란 점에서 변화와 행동

을 독려하는 장기말, 즉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발전의 추진동력이었다. 마지막으로 남녀칠세부동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끈질기게 살아남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폐기를 주장하는 ‘탈-’남녀칠세부동석의 구호였다. 이 외침이야말로 끊임없이 남녀칠세부동석을 소환하면서 한국사회의 유교주의 보수성에 실체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과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채 억압과 탈억압의 쳄바퀴를 돌면서 성에 대한 보수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논리가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일제강점기 너머 전근대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 의지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정신과 전문의의 기고문(#115)이 새로운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115. 어릴수록 ‘원초적 본능’ 조절 힘들습니다.

과거 남녀 차별 문화가 강하던 시절에는 남녀가 만나는 기회 자체를 제한했다. 그래서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이 고루한 말 속에 오늘날에도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성 발달 과정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어린 아이들의 왕성한 성적 호기심을 미리 경험으로 알고 어린 때부터 성적인 본능을 잘 길들여야 한다는 지혜를 바탕으로 ‘**남녀칠세 부동석**’을 실천하진 것은 아닐까?⁶⁵

이 전문의는 의학담론 안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을 “경험”적 실증주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서 남녀칠세부동석은 극복의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의 성 발달”, “성적인 본능”이라는

65 《한겨레》, 2005년 6월 19일자.

의학의 영역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새겨들어야 할 교훈”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기사는 “길들여야 한다”는 훈육의 가치를 의학의 이름으로 증여받 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윤리의 레토릭을 통해, 성을 과학적 관리 체계의 경계 안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생리·병리학의 관점에서 ‘성욕’을 사회적 관리의 영역으로 복속시키고자 했다. 그 예 중 하나가 앞서 본 단성학교제도였다. 이러한 관리체계가 식민지 공간에도 이식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성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규정하고 그 기원을 유교적 전통에서 찾아온 시도들은 근대 이후 태동한 새로운 관리방식을 집어내지 못했다. 반대로 의도치 않게 은폐시켜온 측면 이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치에 건 담론들은 “내적인 욕구 형성(즉 성욕)에 대해서는 이론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⁶⁶ 이는 새로운 연구의 여지를 남긴다. 유교주의 보수성 담론이 이끌어온 논의 속에서 과학과 의학의 지식으로 무장한 근대적 관리체계의 흔적들을 찾아볼 필요 가 있는 것이다.

66 김은희, 「자유주의 성윤리의 수정: 쾌락 중심에서 자율성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9권(2013), 117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學部, 『韓國教育』. 1909.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동광》, 《별건곤》, 《삼천리》, 《여성界》, 《女苑》, 《새가정》.

2. 단행본

김중순,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 일조각, 2015.

류지한, 『성윤리』. 울력, 2002.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성의 역사』. 나남, 2010.

술라미스 파이어스톤 저,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유길준 저, 장인성 역, 『서유견문』. 아카넷, 2017.

이현희, 『한국근대여성개화사』. 한국학술정보, 2001.

이화형·허동현·유진월·맹문재·윤선자·이정희, 『한국현대여성의 일상문화』. 국학자료원, 2005.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제프리 워스 저, 채규형·서동진 역, 『섹슈얼리티』. 현실문화연구, 1994.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1998.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출판, 2009.

赤川学, 『セクシュアリティの歴史社会学』. 東京: 勁草書房, 1999.

Frühstück, Sabine, *Colonizing sex*.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3. 논문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韓國漢文學研究』 42호, 2008, 9-43쪽.

- 김미숙, 「미군정기의 남녀공학정책: 성별학교조직과 성통제 양식」. 『교육학연구』 39권 4호, 2001, 93-112쪽.
- 김은희, 「자유주의 성윤리의 수정: 쾌락 중심에서 자율성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9권, 2013, 85-123쪽.
- 배홍철, 「한국 1920년대, 나체화를 둘러싼 예술과 외설의 사회적 의미」. 『한국학』 36권 4호, 2013, 202-230쪽.
- 신성환, 「근대계몽기 여성의 호명과 교육, 그리고 『片片奇談警世歌』: 〈녀자교육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1호, 2014, 37-62쪽.
- 이배용, 「19세기 개화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韓國思想史學』 20권, 2003, 113-150쪽.
- 임현진·박순열, 「한국 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의 모색」. 『사회와 이론』 21권 2호, 2012, 569-609쪽.
- 정병설, 「조선 후기 성(性)의 실상과 배경: 『기이재상담(紀伊齋常談)』을 중심으로」. 『人文論叢』 64권, 2010, 163-202쪽.
- 최문기, 「성 윤리의 논변 비교」. 『倫理研究』 52호, 2003, 19-39쪽.
- 小口 功, 「日本における男女共学の成立と展開の分析視点」. 『近畿大学教育論叢』 26권 1호, 2014, 69-93쪽.
- 小稻 絵梨奈, 「日本における男女共学論の歴史と背景: 小泉郁子の思想」. 『教育学研究論集』 7호, 2012, 167-174쪽.
- Martin, John Levi. "Structuring the sexual revolution." *Theory and Society*, Vol. 25(1), 1996, pp. 105-151.

국문초록

한국적 섹슈얼리티의 논의들은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보수적이며, 이러한 경향이 유교사회의 문화적 흔적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을 공유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유교 경구 ‘남녀칠세부동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지난 100여 년간 신문 및 잡지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에 따라 남녀칠세부동석이 지시하는 의미가 달라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초 남녀평등 논의 안에서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원리였던 반면, 해방 이후에는 풍기문제와 결합하면서 이성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의 의미로 확장되었고 점차 후자로 굳어지게 되었다. 둘째, 남녀칠세부동석은 ‘탈·남녀칠세부동석의 구호와 짝을 이루며 구습과 선진이라는 이항대립의 전술 안에서 활용되었다. 동시에 역사발전의 논리 안에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사추진의 동력으로 소환되었다. 결과적으로 남녀칠세부동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남게 한 것은 폐기를 주장한 ‘탈·남녀칠세부동석의 구호였다. 이 선동의 구호가 끊임 없이 남녀칠세부동석을 소환하면서 한국적 보수성에 실체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사회는 과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채 억압과 탈억압의 쳄바퀴를 돌면서 성에 대한 보수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구축해온 것이다.

투고일 2020. 6. 23.

심사일 2020. 7. 23.

게재 확정일 2020. 11. 5.

주제어(keyword) 남녀칠세부동석(sex segregation), 섹슈얼리티(sexuality), 유교 문화(Confucian culture), 보수주의 conservatism), 억압의 가설(repressive hypothesis)

Abstracts

The Rhetoric of Korean Conservatism with Sexuality

Bae, Hongchul

Most of us are accustomed to think of the belief that our society is conservative with sexuality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idea. The Confucian aphorism is one of classical examples, "Male and female avoiding from the age of 7" commonly used. This study raise the issue of general belief, then historically reviews the belief and traces the process of structuring the concept, the Korean conservatism with sexuality. In order to look deep in to history, this research analyzed contents of articles including the aphorism in mass media for the 100 years. In result, the aphorism's referential meaning has been changed with the social current. It signified 'the exclusion' on the agenda of gender equality, and 'the separation' in the argument of sexual morality. Second, the idea, the sexuality has been repressed, was available for people to formulate current changes and protagonists. Such being the case, the aphorism "Avoiding from the age of 7" was continuously cited and consequently the belief, Korean society has been conservative with sexuality, became permanent.